

# 대구국제뮤지컬축제(DIMF) 진단:

프로그램 선정을 중심으로

한 지 수

1. 대구국제뮤지컬 축제의 성립과 목표
2. 공식초청작에서 보이는 디프의 국제성과 지역성
  - 1) 해외공식초청작
  - 2) 국내공식초청작
3. 창작지원작의 대중성
4. 결론

[www.kci.go.kr](http://www.kci.go.kr)

## 개 요

이 논문은 대구국제뮤지컬축제(이하 댐프)의 공식초청작과 창작지원작을 살펴봄으로서 지역축제의 당위성과 뮤지컬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댐프의 목적이 어떻게 마찰을 일으키고 반영되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뮤지컬산업 발전의 목표와 축제공연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규모, 구성과의 마찰은 해외공식초청작에서 작품질의 저하, 공감의 문제, 작품규모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무리한 공연장 확대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국내공식초청작은 대구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과 뮤지컬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제가 있는 작품이 선정됨으로서 축제참여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창작지원작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실험성보다 대중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야기 소재는 로맨틱 코미디의 변형을 사용하였고 기존의 쇼케이스나 다른 창작지원사업에 공모한 작품을 선정함으로써 새로운 작품의 발굴보다는 흥행 가능성이 높은 작품에 관심을 보였다. 결국 많은 대중이 함께 즐기고 다양한 작품들을 보고 자극받기를 원하는 축제의 이상은 댐프의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한 목표와 조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댐프가 ‘축제’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한 축제의 본질적 정의는 항상 문제의식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댐프가 원하는 뮤지컬산업의 육성은 오히려 축제참여자의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고민함으로 가능할 것이다.

주제어: 대구국제뮤지컬축제, 뮤지컬 산업, 지역성, 세계시장, 공식초청작, 창작지원작

## 1. 대구국제뮤지컬 축제의 성립과 목표

우리나라의 축제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행된 1995년 이후 지역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그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926개였던 것이 참여도의 저조, 지나친 예산집행 등을 이유로 중단되는 경우가 생겨서 2014년에는 555개로 현저히 줄어든 상태이다.<sup>1)</sup> 비록 그 숫자는 줄었지만 그 소재와 운영, 주제, 참여의 방법을 모색함으로 그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중이다.

공연예술축제의 하나인 대구국제뮤지컬 축제(Daegu International Musical Festival, 이하 뎀프)는 2007년 아시아의 유일한 국제 뮤지컬 축제를 표방하며 개최되었다. 뎀프는 서울 다음으로 커진 대구뮤지컬 시장과 대구 경북권 지역의 뮤지컬 관련학과 졸업생의 인적자원, 그리고 1000석이 넘는 대형공연장 8개와 다수의 공연장을 축제성립의 자원으로 삼았다. 대구는 “2003년과 2004년 《캣츠》(Cats) 오리지널 팀의 공연으로 34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시장이 되었고 2005년 《맘마미아》(Mamma Mia)의 공연은 대구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객석 점유율 87%, 6만4천명관객 동원, 40여억 원의 매출을 올려 장기공연이 가능한 뮤지컬 관람 도시가 되었다.”<sup>2)</sup> 2001년 《오페라의 유령》 라이선스 공연이 국내뮤지컬 시장의 규모를 키운 지 2년 만의 일이었다. 뎀프는 2006년 프레(Pre)대구국제뮤지컬축제를 거쳐 2007년 제1회 대구국제뮤지컬 축제를 개최, 2014년 제8회를 맞이하고 있다.

뎀프는 그 목적을 “뮤지컬 연관 산업 발전에 따른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sup>3)</sup> 그리고 “아시아의 아트마켓을 만들 것”<sup>4)</sup>이라고 밝

1)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 [http://www.mcst.go.kr/web/s\\_culture/festival/festivalList.jsp](http://www.mcst.go.kr/web/s_culture/festival/festivalList.jsp).

2) “뮤지컬이 대구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1487&contents\\_id=14606](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1487&contents_id=14606).

3) 『데일리안』 2006년 2월 1일.

했다. 이는 덤프를 통해 창작뮤지컬 활성화와 이와 연관된 산업을 육성하고, 뮤지컬 시장의 기능을 담당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축제의 목적을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뒀으므로 “산업적 접근”<sup>4)</sup>이 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한 방안이 되었다.

그러나 축제는 원래 제례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신성한 것의 추구, 평등, 참가자들의 단결과 화합, 자발성, 평소와 다른 일탈, 감정의 분출, 공동체로서의 자부심과 긍지, 함께 즐기기를 그 내용으로 한다. 현대사회의 축제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부터 활발히 개최되었던 이유도 경제적 부가가치의 산출에 목적이 있었지만 지역공동체로서의 자부심과 지역민의 정신적 화합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덤프가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명분하에서 뮤지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로 만들어졌지만 축제 참여자가 느껴야 하는 즐거움과 자부심, 공감은 덤프의 공연이 단순히 공연물의 합 그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덤프는 이러한 축제의 당위성과 뮤지컬 산업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어야 했다. 이에 논자는 8회의 짧은 덤프 역사지만 그 동안 이 들을 어떠한 식으로 조화시켰을까, 창작뮤지컬 작품의 생산과 수출, 세계적 뮤지컬 시장의 개척을 아우르는 뮤지컬 산업의 육성이 축제의 제한된 공간, 시간, 예산안에서 어떠한 작품을 선정하게 하였을까, 축제가 풀어 놓아야 할 다양한 작품에 대한 요구와 대구의 정체성과 공감은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다.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덤프의 공식초창작과 창작지원작(뮤지컬 시드, Musical Seed)의 작품선정에서 보이는 여러 고려 사항을 살펴봄으로서 덤프의 지역축제로서의 당위성과 목표가 어떻게 맞물리고 마찰을 빚는지, 그 결과가 어떠한 지를 살펴 볼 것이다.

4) 『헤럴드팝』 2008년 6월 19일.

5) 『서울경제』 2010년 8월 20일.

## 2. 공식초청작에서 보이는 디프의 국제성과 지역성

디프는 해외교류, 한국창작 지원사업, 산학연계시스템을 사업내용으로 하며 공식행사, 공연, 부대행사로 구성되어 있다.<sup>6)</sup> 공연부분은 공식초청작과 창작지원작(뮤지컬 시드)<sup>7)</sup>, 대학생뮤지컬페스티벌로 구성된다. 공식초청작은 세계의 다양한 뮤지컬과 기존의 국내 창작뮤지컬을 소개하고 있다. 뮤지컬 시드(이하 창작지원작)는 초연되지 않은 국내창작뮤지컬 중에서 몇 작품을 선정하여 소개하며 대학생뮤지컬페스티벌은 기존의 뮤지컬을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여 무대에 올리고 있다. 공식초청작은 해외초청작과 국내초청작으로 나뉘는데 해외초청작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한 번도 공연되지 않은 작품을 그 초청대상으로 하며, 국내초청작도 대구에서 공연된 적이 없는 한국의 창작뮤지컬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sup>8)</sup>

공식초청작 선정기준에 대해 박정숙 기획운영실장은 “집행위원들이 대중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다”<sup>9)</sup>고 이야기한다. 2007년 1회부터 2014년 8회에 이르기까지 공식초청작은 특별공연 포함하여 총63편으로 해외초청작 26편(디프와 합작 2편 포함)과 특별공연을 포함한 한국작품 37편이었다. 초청된 나라와 작품 수는 다음과 같다. ([표1] 참조)

[표 1] 공식초청작 해외초청나라와 작품 수

나라	중국	호주	러시아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체코	멕시코	슬로바키아	합계
작품 수	5	4	3	4	3	2	1	1	1	1	26

6) “제8회 디프 프로그램,” 4.

7) DIMF Musical Seed는 2014년에 창작지원작선정의 새로운 명칭이다.

8) 박정숙 인터뷰.

9) 박정숙 인터뷰.

### 1) 해외공식초청작

공식초청작중 해외초청작은 국제적 축제임을 알리는 주요한 기제이다. 보통 한해 2-3편 정도 초청되며 많게는 4편까지 초청이 되었다. 해외공식초청작 중에서 주로 개·폐막작이 선정되는데, 개막작의 공연은 축제의 규모와 성격을 공포하는 시간이며 폐막작은 축제기간동안의 감동과 감격을 극대화시켜 내년에 개최될 축제를 기대하게 한다. 님프는 개·폐막작을 선정함에 있어서 국제적 행사에 거는 기대감과 국제교류의 성과를 반영시키려 하였다. 1회부터 8회까지의 개·폐막작은 총15편으로 개막작 9편, 폐막작 6편<sup>10)</sup>이다. 미국과의 합작품이 선정되긴 하였지만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의 유명한 작품은 선정되지 않고 총7개국의 작품이 선정되었다.<sup>11)</sup> 선정된 나라와 작품 수는 다음과 같다. ([표 2] 참조)

[표 2] 개·폐막작으로 선정된 나라와 작품 수

나라	중국	호주	한국	러시아	미국과 님프합작	멕시코	슬로바키아	합계
작품 수	5	3	2	2	1	1	1	15

개·폐막작은 아직까지 다양한 나라의 작품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있지만 해외의 수작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대감이 가장 큰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개·폐막작 선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3] 참조)

그 첫 번째는 국제교류의 강조로 인한 수준 있는 작품의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15편의 개·폐막작 중에 ⅓인 5편이 중국

10) 2007년과 2013년의 폐막작은 그 정보를 알 수 없었다.

11) 2007년 《캣츠》(Cats)가 공식초청작으로 공연되었으나 폐막작은 아니었다.

작품으로 선정되었고 이중 중국최대뮤지컬 제작사인 송레이 프로덕션(Songlei Production)의 작품이 2편이다. 송레이 프로덕션의 《사랑해 테레사》는 100억, 《버터플라이》(Butterfly)는 85억이 투자된 초대형뮤지컬이고 다국적 창작팀이 투입된 중국작품 《마마 러브 미 원스 어젠》(Ma Ma Love Me Once Again)도 송레이 프로덕션에서 감독을 맡았던 리둔이 프로듀서를 맡아 대형뮤지컬의 화려한 볼거리와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이에 비해, 작품의 수준은 신파조의 이야기 전개와 과장, 브로드웨이에서 이미 본 듯한 뮤지컬의 춤과 합창으로 인해 개·폐막작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역부족이었다. 그 밖의 작품도 마찬가지로 2007년도의 《일과산조》(一把酸棗)는 무용극으로 뮤지컬의 정체성에 논란을 일으켰고 2012년의 《단교》(斷橋)는 ‘중국의 다양한 전통 공연예술을 뮤지컬에 적절히 배치한 것’<sup>12)</sup>으로 뮤지컬의 특성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였다는 평을 들었다. 박정숙 기획운영실장은 중국 편중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딤프가 국제축제이기는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브로드웨이의 뮤지컬을 초청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중국이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뮤지컬 시장의 급성장 가능성을 보임으로 뮤지컬 시장의 개척을 염두에 두고 중국작품을 초청한다. 더욱이 중국의 송레이 프로덕션은 지역성과 활성화되고 있는 중국내의 뮤지컬 시장의 요건을 고려하였을 때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딤프에 적극 참여하였다.<sup>13)</sup>

크고 화려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자하는 욕구와 국제교류를 통한 시장개척에 대한 목표는 결국 개·폐막작으로 다소 무리가 있는 작품들을 선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유사한 예는 멕시코의 작품 《앵주》(Anjou)에서도 보였다. 16세기 프랑스 종교개혁의 역사를 다룬 대작이었지만 막장드라마의 한계를 보이면서 ‘납량특집 막장 코미디’<sup>14)</sup>라는

12) 『한국일보』 2012년 7월 10일.

13) 박정숙 인터뷰.

평을 들었다. 2014년 슬로바키아 뮤지컬《마타하리》(Mata Hari)는 슬로바키아의 국민가수라 일컫는 시사 스클로브스카(Sisa Sklovska)의 음악연행이 강조된 뮤지컬로 극변화의 한계점을 보인 작품이었다.

두 번째는 개·폐막작은 크고 화려해야 된다는 요구의 반영을 왜곡시키는 것이었다. 호주작품이었던 《사파이어》(The Sapphires)는 아기가기한 내용이지만 ‘소극장용에 알맞은 것으로 폐막작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평<sup>15)</sup>을 들어 대극장용 뮤지컬이 개·폐막작의 중요 조건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반영하기 위해 중소극장용 뮤지컬을 무리하게 대극장용으로 전환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2013년 미국과 합작품인 《썬피쉬》(Sun Fish)는 ‘중극장용의 작품을 대극장으로 옮기면서 공허해졌다’<sup>16)</sup>라는 평을 면할 수 없었다. 1000석 규모의 수성아트피아에서 공연된 2009년의 러시아의 《가련한 리사》도 세계유명축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았지만 등장인물이 4명이고 어쿠스틱한 선율, 비극적 사랑의 고전적 작품으로 작은 무대에 더 적합하였다. 2009년 《메트로 스트리트》(Metro Street)는 호주의 연출자가 “600석 정도의 극장에서 관객과 친밀한 소통이 돼야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데”<sup>17)</sup>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음향시설이 좋다는 이유로 1000석이상의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을 하였다. 실제로 이 공연은 관객에게 공연내용이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평을 받았다. 위에서 언급한 중국의 대규모 뮤지컬도 작품의 크고 웅장한 규모를 중시함으로 개·폐막작의 작품선정 수준의 논란을 일으켰다.

14) 『한국일보』 2010년 6월 15일.

15) 『뉴시스』 2010년 7월 4일.

16) 『뉴시스』 2013년 6월 19일.

17) 『세계일보』 2009년 6월 17일.

[표 3] 개·폐막작 작품과 나라 및 관련사항

번호	년도	개·폐막작	작품명	나라	극적 소재	수상 및 공연	기타
1	2007	개막작	일파산조	중국			중국무극
2	2008	개막작	유로비트	호주	유로비전콘테스트를 소재로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공연 및 수상	
3	2008	폐막작	버티플라이	중국	중국의 고전		경극의 현대화, 초호화 대형뮤지컬, 송레이 뮤지컬 프로덕션
4	2008	개막작	메트로스트리트	호주	가족애	호주 아틀레이드 페스티벌에 공식초청작	
5	2009	폐막작	가련한 리자	러시아	비극적 사랑	에딘버러 페스티벌프린지 1등. 아비뇽페스티벌 공식초청작	
6	2010	개막작	양주	멕시코	프랑스역사	뉴욕타임스, 뉴욕씨어터 닷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음	

번호	년도	개·폐막작	작품명	나라	극적 소재	수상 및 공연	기타
7	2010	폐막작	사파이어	호주	스타를 꿈꾸는 4자매 이야기	호주의 헬프만어워즈에서 2005년 최우수 호주작품상	
8	2011	개막작	투란도트	한국	중국의 남녀 사랑이야기		오페라에서 소재를 차용
9	2011	폐막작	사랑해 테레사	중국	중국가수 등려군		초호화 대형뮤지컬, 송레이 뮤지컬 프로덕션
10	2012	개막작	아리랑판타지	한국	한국의 다문화		
11	2012	폐막작	단교	중국	중국의 전설		중국의 전통 종합예술의 혼합
12	2013	개막작	썬피쉬	미국과 딥프가 합작	심청전		딥프와 미국의 합작
13	2014	개막작	마마 러브 미 원스 어겐	중국	모성애		리둔 프로듀서 (송레이 그룹)
14	2014	개막작	마타하리	슬로바키아	실존인물인 마타하리		
15	2014	폐막작	몬테크리스토	러시아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		

세 번째 작품선정에서 보이는 한계는 공감의 문제였다. 2008년 《유로비트》(Eurobeat)에 사용된 유모어는 유럽의 역사를 알고 있을 때만이 웃을 수 있고<sup>18)</sup> 2009년 《메트로스트리트》의 진지한 철학적 내용은 가족애라는 보편적 내용을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단순화된 갈등구조로 인해 한국의 관객이 공감하기 쉽지 않을 것”<sup>19)</sup>이라 하였다. 《유로비트》가 한국관객과의 괴리를 알지 못하고 선정된 것이라면 《메트로스트리트》는 덤프가 아트마켓으로의 정체성을 실험한 데서 기인하였다. 2009년 제3회 덤프의 집행위원의 한사람이었던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은 “대구가 한국 뮤지컬의 테스트 마켓으로 자리 잡도록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이 꾸준히 올라가야 한다”<sup>20)</sup>라고 이야기 한바 있다.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것은 축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덤프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폐막작 선정에 공감의 문제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덤프는 이러한 공감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브로드웨이의 국제적 감각을 접목시키기 위해 미국과 합작품인 《썬피쉬》를 2013년 개막작으로 선정한다. 심청전을 소재로 한 이 뮤지컬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작곡가 김혜영을 제외하고는 다른 창작자들은 외국인이다. 한 인터넷 매체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문법에 충실하면서도 동아시아 정서를 결합한 의상과 무대 등에서 정서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느껴진다”<sup>21)</sup>라고 평을 하고 있다. 소요되는 비용과 평에 대한 부침이 많은 자체생산물 보다는 한국적 소재와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합작함으로써 한국적 정체성과 생산자로서의 위치를 가지려 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행사를 표방하면서도 개·폐막작의 부담을 줄인 해외공식초청

18) 『세계일보』 2008년 6월 19일.

19) 『한국일보』 2009년 6월 17일.

20) 『세계일보』 2009년 6월 17일.

21) 『뉴데일리』 2013년 6월 18일.

작은 특정 나라와 특정 공연집단, 그리고 특정행사의 작품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작품의 경우 3편이 뉴욕뮤지컬페스티벌(The New York Musical Theatre Festival)의 수상작<sup>22)</sup>이었고 프랑스 작품의 경우 실험성이 돋보이기는 하였지만 한국인 김세정이 기획과 음악을 맡고 있는 아크로노트 컴퍼니(Acronote company)만이 3회째 참가하고 있었다.

해외의 작품 수가 적은 상황에서 특정한 축제를 거친 작품들을 몇 회에 걸쳐 공식초청작으로 선정하는 것은 축제의 다양성을 넓히고 수준을 높이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아직까지 실험적 작품이 많이 공연되는 ‘아트 마켓’ 성격의 뉴욕뮤지컬페스티벌의 수상작을 공식초청작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작품의 완성도를 기대하는 관객에게 실망의 여지를 줄 수 있다. 더욱이 다양한 형식의 뮤지컬이 국내 뮤지컬 장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고 덤프도 아직 자신의 방향성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정 단체나 특정페스티벌의 작품들이 많이 초청된다면 축제의 정체성 성립에 혼란을 줄 수 있다.

## 2) 국내공식초청작

국내공식초청작은 대구에서 아직 공연되지 않은 기존 창작 작품 중에서 선정된 것 그리고 지난해에 창작지원작수상작이다. 덤프는 크게 3가지의 점에서 프로그램 선정의 문제를 고려하였다. 첫 번째는 대구의 지역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뮤지컬 관람계층에 대한 고려, 세 번째는 뮤지컬 생산을 활성화시키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었다.

22) 뉴욕뮤지컬페스티벌의 회원 이용규에 의하면 “덤프와 뉴욕뮤지컬페스티벌은 축제 초기에 MOU를 체결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다.

한국 작품 37편중 14편의 작품이 대구단체의 작품이거나 공동제작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고 나머지는 서울단체의 작품이다. ([표4] 참조) 덤프는 지역축제임을 감안하여 지역의 작품을 무대에 올림으로서 지역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였고 지역단체에게 발표무대를 제공하여 대구의 뮤지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대구제작단체의 작품은 약 38%로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대구지역 공연 단체의 공식초청작

번호	년도	작품명	공연단체	연출	극본	음악	선정기준
1	2007	심청	국립창극단, 영남관소리연구회				대구단체
2	2008	만화방 미숙이	극단 뉴컴퍼니	이상원, 이용창	이성자	윤정인	인기
3	2009	그랜드 체이스	극단 한울림	극단 한울림의 연출진		백재성 엔터테 인먼트	대구의 행사
4	2009	소울 메이트	씨어터컴퍼니 CT	이종훈	최현목	이영주	인기
5	2011	투란도트	(사)대구뮤지컬페 스티벌, 대구광역시	유희성	이해제	장소영	덤프자체 제작
6	2011	로미오와 줄리엣	대구시립극단				대구단체
7	2011	1224	초이스씨어터	최주환	안희철	윤정인	인기
8	2012	비방문 탈취작전	극단 MAC 시어터	권혁		윤정인	인기
9	2012	투란도트	대구광역시, (사)대구뮤지컬페 스티벌				덤프자체 제작
10	2013	아리랑-경 성26년	(새)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이지나	이지혜	이지혜	덤프자체 제작

번호	년도	작품명	공연단체	연출	극본	음악	선정기준
11	2013	오! 미스리	극단초이스어터	최주환			인기
12	2013	백설공주 와 일곱난 장이	대백전속극단 레오	김종련			어린이용 대구단체
13	2014	메이파밍짜	한국 극단 '뉴컴퍼니'와 중국 극단 '강소성연극단'의 공동제작	이상원 (한국)	안희철 (한국)	전일환 (한국)	중국과 공동 제작
14	2014	사랑꽃 (특별공연)	극단 MAC 시어터	정철원	작사: 윤정인, 지안	작곡: 윤정인, 구지영	딤프대상

대구의 지역성을 드러내려는 기준에 있어서는 대구의 창작단체의 작품 중 공공성과 인기를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대구가 주최하는 행사에 공연되었던 작품, 딤프에서 수상한 경험이 있는 작품을 선정하였다.

뉴컴퍼니와 초이스씨어터, 극단 맥씨어터의 작품은 대구에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진행시킨 단체로 극단 뉴컴퍼니의 2008년 《만화방미숙이》는 이미 서울에서 공연된바 있고 2014년의 《메이파밍짜》는 중국으로 진출하였다. 극단 초이스씨어터의 2011년 초청작인 《1224》는 2009년 대구에서 공연된 이후 꾸준히 공연되고 있었던 작품이고 2013년의 《오! 미스리》는 《1224》의 수정본이다. 극단 맥씨어터의 2012년 《비방문탈취작전》도 2011년 이후 장기공연에 들어간 상태였고 2014년의 《사랑꽃》은 2013년 딤프 수상작이었다. 대부분의 대구제작의 뮤지컬은 기존 창작뮤지컬의 전형인 로맨틱 코메디 작품으로 장소와 사투리로 지역적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투란도트》와 《아리랑-경성26년》은 딤프의 자체제작물이다.

극단 한울림의 《그랜드체이스》는 게임뮤지컬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대구 디지털 산업 진흥원과 KOG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 문화 콘텐츠 진흥원이 후원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 밖에 어린이를 위한 극단 대백전속극단 레오, 시민무료 공연을 한 대구시립극단, 판소리극을 한 영남판소리연구회가 있었다. 국내 공식초청작의 3분의 1 이상을 대구제작품으로 올렸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공연되고 있는 작품은 위에 열거한 뉴컴퍼니와 극단 맥씨어터의 작품들이 전부이다. 그러나 지역 정체성의 애매한 정의와 이러한 지역적 정체성을 어떠한 식으로 구분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없음으로 지역단체에게 공연기회를 주는 것으로 점점 그 의미가 한정되고 있다.

딤프가 지역의 축제임을 알리는 또 다른 기제는 딤프와 연관된 작품들을 초청하거나 대구의 행사에 참가한 작품을 선정함으로써 대구축제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었다. ([표5] 참조)

[표 5] 타지역 단체의 공식초청작과 대구와의 연관성

번호	년도	작품	대구와의 연관성
1	2009	미스타 조	제1회딤프 창작뮤지컬 대본 공모 당선작
2	2010	스페셜 레터	전년도 창작지원작
3	2010	반디의 노래	대구의 행사/대구의 대한민국환경음악제
4	2011	헨젤과 그레텔	전년도 창작지원작
5	2012	식구를 찾아서	전년도 창작지원작
6	2013	샘	전년도 창작지원작
7	2014	룩 옛 미	전년도 창작지원작

딤프는 전년도 창작지원 수상작을 그 다음해 수정 보완하여 대극장용으로 올리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회는 딤프 창작지원의 성과를 공식초청작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구의 창작뮤지컬 생산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년도의 창작지원작을 보다 작품성 있는 공

연물로 무대에 올리는 것은 덤프가 대구뿐 아니라 국내창작뮤지컬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표현이다. 그 밖에 대구와 관련된 뮤지컬은 2011년 《반디의 노래》로, 대구가 주최한 2007년 제2회 대한민국환경음악제에서 공연되었던 가족뮤지컬이다.

두 번째 작품 선정 기준은 악극이나 가족뮤지컬과 같은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표6] 참조)

[표 6] 국내공식초청작의 악극, 어린이, 청소년, 가족용 선정작

번호	년도	작품명	장르 및 공연대상
1	2007	울고 넘는 박달재	악극
2	2007	오즈의 마법사 <sup>23)</sup>	어린이
3	2007	오디션	청소년
4	2008	비내리는 고모령	악극
5	2008	강아지 똥	어린이
6	2008	소리도둑	가족
7	2010	브레멘 음악대	어린이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작품 선정은 2007년과 2008년 즉 1, 2회의 축제에 국한되어 있고 이러한 다양한 대상을 위한 선정은 최근에는 거의 볼 수 없다. 2010년에 《브레멘 음악대》가 선정되었지만 이것은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의 전략화<sup>24)</sup>의 상징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외진출의 의미가 더 크다.

세 번째 기준은 국내창작뮤지컬 중에서 상업성이 뛰어난 작품이나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들이 있는 작품, 그리고 덤프가 자체 제

23) 2007년 《오즈의 마법사》는 한국의 창작뮤지컬이 아니라 일본의 작품이지만 일본 극단 비행선의 한국단독대행사인 (주) 비행선 코리아가 공연하였다.

24) 『매일경제』 2010년 8월 20일.

작한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었다. 덤프는 뮤지컬 생산기지의 위상을 알리고 세계진출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취지에서 덤프 자체제작물인 《투란도트》(Turandot)를 2011년 개막작으로 선정하였다. 《투란도트》는 세계진출을 목표로 한 것으로 극의 이야기는 오페라로 널리 알려진 투란도트를 차용하였다. 20여곡의 뮤지컬 넘버가 있고 대금과 해금의 소리가 현대적으로 변용된 대작이었다. 그러나 《투란도트》는 대구와 관련이 없다는 창작뮤지컬 정체성의 문제를 지적받았는데,<sup>25)</sup> 이에 대해 배성혁 집행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뮤지컬은 오페라, 연극하고는 다르다. 순수예술 육성보다 철저하게 문화산업, 상품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역적 소재를 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전국무대, 세계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 대중이 외면하면 사장된다. 오페라 투란도트는 세계인들이 잘 아는 작품이다. 이것을 뮤지컬로 만들어 미스사이공이나 렌트처럼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나. 성공하면 50년간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 수익금으로 덤프는 완전 자립할 수도 있다. 뮤지컬은 상품이란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지역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는 문화산업에 있어선 통용되기 어렵다.<sup>26)</sup>

대구 혹은 한국의 정서와 소재를 창작뮤지컬에 투영시켜야 한다는 것과 그것보다는 세계의 관객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소재의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의 마찰이다. 2012년 덤프는 한국의 다문화가정 이야기를 그린 작품 《아리랑 판타지》를 개막작으로 올렸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다룬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개막작의 적합성여부와 작품성의 논란이 야기되었다.<sup>27)</sup> 작품선정에 있어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에 가치를 둘 것이냐 지역축

25) 『매일신문』 2010년 9월 29일.

26) 『한국일보』 2011년 5월 2일.

27) 『매일신문』 2012년 6월 21일.

제가 드러내야 하는 공동체의 정서의 가치를 우선할 것이냐의 갈등으로 보인다. 뎀프는 2013년 자체제작물인 《아리랑-경성26년》을 무대에 올림으로 지역적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였다.

뮤지컬을 세계시장에 수출하고 뮤지컬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뎀프의 열망은 국내 공식초청작으로 세계진출의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선정하였다. ([표7] 참조)

[표 7] 국내공식초청작의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제들

번호	년도	작품	특징
1	2007	컨츄리 보이 스켓	CJ창작뮤지컬 쇼케이스에서 일등
2	2009	싱싱싱	국내 최초 채즈창작뮤지컬
3	2009	라디오 스타	원 소스 멀티 유즈(One-Source Multi-Use)
4	2010	이순신	해외 진출 프로젝트
5	2010	브레멘 음악대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전략
6	2012	설록홈즈	해외원작으로 세계진출을 위한 소재의 호감도를 높임
7	2013	해를 품은 달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한류
8	2014	로스트 가든	5개국 전문가들이 제작에 참여한 글로벌 프로젝트
9	2014	메이파밍짜	대구극단과 중국극단의 공동제작

대기업의 전략적 뮤지컬 육성프로그램인 CJ쇼케이스, 국내최초 새로운 뮤지컬장르의 시도, 해외진출프로젝트, 원소스멀티유즈, 국제적 이야기의 사용, 글로벌 프로젝트, 한류, 공동제작과 같은 해외에 뮤지컬을 수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의 작품이 선정되고 있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주로 한국뮤지컬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제들이 있는 작품이 선택되었다면 2010년 이후에는 수출에 성공한 경우

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이 선정되었다. 이것은 전체 한국장작뮤지컬 시장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고 덤프가 자신의 운영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덤프는 8회의 축제를 개최하는 동안 세계시장 진출의 목적과 지역축제로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대구 뮤지컬 제작의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수준 있는 작품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았고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지 않아 작품 선정기준이 모호하였다. 덤프는 자체생산과 전년도 창작지원작 수상작을 공식초청작에 선정함으로써 창작뮤지컬 발굴과 육성의 중심에 덤프가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국내 공식초청작에서 드러난 보다 근원적인 문제점은 지역성과 세계진출의 기준을 두고 작품을 선정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관객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의 공연도 2시간이면 갈 수 있고 공연정보도 실시간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새로운 뮤지컬에 대한 욕구는 지역적이라는 이유로 선정되고, 해외에 수출되었다라는 이유로 선정된 작품을 봄으로서 채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 3. 창작지원작의 대중성

덤프의 창작지원작은 덤프가 추구하는 가치 즉 뮤지컬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창작뮤지컬을 발굴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만들어졌다. 창작지원작은 8회의 축제 동안 총 37개의 작품이 선정되었는데 매년 적게는 3편, 많게는 6편의 창작작품이 선정되었다. 창작지원작의 취지, 기준과 지원을 덤프는 다음과 같이 알리고 있다.

우수창작뮤지컬 발굴, 지원출 통해 대한민국 창작뮤지컬 지원 육성, 뮤지컬 창작의용 고취, 인큐베이팅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작품의 질적 향

상과 상품적 가치 상승기대로 지원대상은 무대에 오르지 않은 순수 창작뮤지컬(Try out이나 Workshop형태로 공연되었던 작품 신청가능)을 골자로 5개 작품을 선정하고 선정작에는 작품당 4천만원에서 6천만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전문자문단(기술, 프로듀서, 쇼 닥터)를 지원하며 티켓매출은 참가단체로 귀속한다 심사기준은 독창성, 예술성, 대중성, 완성도이다.<sup>28)</sup>

축제 첫해인 2007년부터 창작지원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우수한 창작 뮤지컬의 발굴에 대한 지원은 주로 창작지원금을 후원해 주는 형식이 었다. 2014년에 창작지원사업을 DIMF Musical Seed 사업으로 명칭을 바꿈으로서 제작 단계부터 전문가(프로듀서, 기술감독 등)에 의한 멘토링 지원을 통해 참가 단체의 제작 역량을 강화시키고, DIMF 어워즈를 통해 최종 선정된 작품은 전문가(프로듀서, 쇼닥터) 인큐베이팅 지원, 차기년도 재공연까지 대폭 강화된 지원을 받게 된다.<sup>29)</sup> 뮤지컬 제작의 전과정을 멘토해 줌으로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 공연을 하도록 돕겠다는 취지이다.

창작지원작에 응모한 작품 수는 한해 33편에서 64편으로, 선정작은 3편에서 6편 사이이다. ([표8] 참조)

28) “2015년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DIMF Musical Seed(창작지원사업) 사업공고”, <http://www.dimf.or.kr/bbs/selectBoardDataDetail.do?mId=3100&boardName=notice&uid=397&page=1>.

29) “대한민국 창작뮤지컬은 ‘DIMF’가 책임집니다.” <http://www.dimf.or.kr/bbs/selectBoardDataDetail.do?mId=3600&boardName=news&uid=304&eventUId=>

〔표 8〕 창작지원각 응모작품 수와 선정작품 수<sup>30)</sup>

번호	년도	응모작품 수	선정작품 수
1	2007	-	5
2	2008	42	3
3	2009	46	5
4	2010	63	6
5	2011	46	3
6	2012	33	6
7	2013	33	5
8	2014	64	4
			총 37

선정된 제작팀은 대구지역의 뉴컴퍼니와 서울의 극단 뮤지컬 스토리, (주)뮤지컬 해븐이 2회 선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겹치는 단체가 없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대구의 선정작은 총 7편이었다. 나머지 30편은 서울과 경기도의 수도권 작품이었다. 대구 제작팀의 작품은 한해 평균 1편 혹은 2편 당선되었는데 2008년과 2014년에는 선정된 작품이 없었다. 서울중심의 공연과 생산문화로 인해 지역의 단체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극본과 연출, 음악 창작팀 중 연출에 김병화, 정철원(대구), 극본에 김병화, 안희철(대구) 음악에 윌 에런슨(Will Aronson)의 작품이 각 2회 선정되었으나 대구의 지역 작곡가인 윤정인은 7개의 작품중 4개의 작품 음악을 담당하여 대구 지역 뮤지컬 작곡가의 부재를 알렸다. 선정된 제작단체는 기존의 제작사들과 신생제작사 그리고 연극단체들이 혼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덤프에 출품하기 전, 타공모에 당선되었거나 워크

30) “2007년에는 덤프 첫해여서 출품작이 많지 않았다”고 박정숙 기획운영실장이 이야기하였다.

속에서 공연된 작품들은 비교적 지명도가 있는 제작사나 연출자의 작품이었다.

딤프는 창작뮤지컬 선정과 관련하여 대중성의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국내창작뮤지컬의 성향을 그대로 가져옴으로서 관객과의 괴리감을 최소화하는 안정성을 추구했다. 대중공연작품의 거의 모든 작품은 로맨스를 기본 소재로 하고 있지만 특별히 2000년대 이후 한국창작뮤지컬의 전형으로 정착한 소극장용 로맨틱 코메디물이 대중적인 기반을 얻고 있다. 딤프는 이 로맨틱 코메디에 기반을 두면서 판타지, 호러, 미스터리, 사회적 이슈를 결합시켜서 소재를 변형시킨 작품들을 선정하였다. 로맨틱 코메디물의 선정은 딤프의 작품선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보이는 성향이지만 특별히 축제초반부인 2008년과 2009년의 작품에서 판타지, 호러, 미스터리와 결합의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37개의 선정작 중 15개인 약40%의 작품이 로맨틱 코메디의 성향에 기대어 있다. 군대, 장기 이식, 이혼, 청년실업, 동성애의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뮤지컬에 투영시킴으로 로맨틱 코메디의 변형을 꾀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형은 음악의 변화에 기여하지 못했고 음악 또한 극의 진부함을 벗어나는데 공헌하지 못했다. 딤프가 이러한 로맨틱 코메디물의 변형물을 선택한 것은 기존 로맨틱 코메디의 인기에 편승함으로서 축제의 대중적 인지도와 관객의 동원을 용이하도록 하려는 데 있었다. 이는 한국창작뮤지컬 제작의 편중된 경향, 아직까지 다양한 관객층이 형성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표9] 참조)

(표 9) 로맨틱 코메디물의 변형

번호	년도	작품명	로맨틱 코메디에 첨가된 사항	소재	기타
1	2007	우리 사랑해도 될까요		첫사랑	
2	2007	마술사 죠니		마술	
3	2007	시간에	판타지	시간여행	
4	2008	포에버	판타지	영혼	
5	2008	마이 스케어리 걸	호러	영화 《달콤 살벌 한 연인》	무비컬
6	2009	스페셜 레터		군대	
7	2009	탱고		춤	
8	2009	사랑을 훔치세요		그림 도둑	
9	2010	풀 하우스		젊은이의 사랑	만화원작
10	2012	데자뷰	판타지	초조대장경	
11	2012	내 인생의 특종		청년 취업문제	
12	2013	소프 오페라	풍자	이혼	
13	2013	유 앤 미	판타지	심장 이식	
14	2013	룩 앤 미	판타지	동화	
15	2014	드 가장		동성애	

대중성을 중요시하는 덤프는 원소스 멀티유즈의 뮤지컬, 덤프 창작지  
원공모 이전에 다른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워크숍에서 발  
표된 검증된 작품을 선택하였다. ([표10] 참조)

[표 10] 창작지원작의 수상 혹은 시연내용

번호	년도	작품명	수상 혹은 시연내용	기타
1	2008	마이 스케이리 걸	2009년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창작팩토리사업 창작뮤지컬 부문당선	외국인 작곡가
2	2009	문리버	2008년 First Look Award for New Musical 수상	번역작
3	2010	번지점프를 하다	2008년 10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워크숍, 2009년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주관 창작팩토리 사업에서 시범공연을 통해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	원소스 멀티유즈의 뮤지컬
4	2011	식구를 찾아서	2010년 창작팩토리 뮤지컬 제작지원 사업으로 선정	
5	2011	모비딕	CJ 크리에이티브 마인즈(2010.11), 두산아트랩(2011.02)에서의 가진 두 번의 워크숍 공연	
6	2012	날아라 박씨!	2011년 창작팩토리 시범공연으로 선정	
7	2012	테자뷰	'제5회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쇼케이스 공연으로 선정	
8	2012	발레소녀 안나	2011년 창작팩토리(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명동예술극장 주관) 시범공연 선정작	

딤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08년부터 주관하여왔던 국내창작뮤지컬의 육성사업인 창작팩토리(창작산실)의 당선작을 가장 많이 선정하였고 외국의 수상작과 쇼케이스, 워크숍, 시범공연 되었던 작품들을 무대에 올렸다. 이러한 작품들은 전문가들의 평가와 감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보다 완성도 높은 작품의 공연을 준비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창작팩토리나 그 밖의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다시 선정한다라는 것은 딤프의 창작지원작 시스템이 왜 있는 것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다양한 작품을 보는 딤프의

독특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창작 뮤지컬에서도 검증된 대중성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다.

때론 기존의 검증체계나 워크숍은 실험적 작품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뮤지컬의 실험성은 흥행을 방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작품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한다. 그러나 워크숍이나 쇼케이스 무대를 갖게 되면 실험성과 대중성의 상호보완작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연으로 성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덤프는 이러한 실험적 작품으로 2011년 《모비딕》을 선정하였다.

《모비딕》은 배우가 노래와 연기, 연주까지도 하면서 극을 이끌어가는 액터-뮤지션 뮤지컬이다. 음악이 극을 드러내는 표현이자 내용이 되는 것으로 한국의 창작뮤지컬에서는 처음 시도 되는 실험적 작품이었다. 이 작품은 2011년 공연 이후 지속적으로 공연되고 있지는 않지만 음악과 극의 보다 원칙적인 결합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변화의 뮤지컬이었다. 그러나 덤프는 이러한 실험적인 작품선정을 오직 《모비딕》으로만 보여주고 있다. 나머지 작품들은 다양한 뮤지컬의 장르를 보여줄 뿐이다. 퍼포먼스 《달》, 국악뮤지컬 《한네의 승천》 국내창작뮤지컬 중에서는 처음 시도 되었다는 2010년 스틸러 뮤지컬 《헨젤과 그레텔》, 어린이극 《쌍쌍육조와 꼬끼리 페르디난도》이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위안부의 이야기를 다룬 2014년 《꽃신》 또한 시대적 문제를 담아낸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작품의 선정이라 할 수 있다.

덤프는 창작지원작에 있어서 대중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창작지원작 시스템이 작품의 제작단계에서부터 공연까지 전문가문단의 도움을 받아 완성도 있는 작품을 무대에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적인 작품이 나오지 않고 있다. 2014년 뮤지컬 시대부터 위의 체제로 바뀌었지만 올해의 작품도 실험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브로드웨이의 전형화 된 쇼를 보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창작지

원작에서 드러내 보이는 대중성은 안정성의 추구로 보인다. 덤프가 창작뮤지컬 발굴과 육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세계진출의 바람은 뮤지컬 창작의 전형성 안에 갇히게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작뮤지컬의 다양한 시도들을 덤프가 수용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4. 결론

2014년 제8회째를 맞고 있는 덤프는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서 지역축제가 가져야 하는 당위성과 국제축제로서 가져야 하는 위상, 뮤지컬산업의 활성화, 창작뮤지컬의 발굴, 육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다. 뮤지컬의 수입과 수출이라는 국제적 교류의 문제, 새로운 창작뮤지컬의 발굴에 있어서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요소들에 대한 고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아트마켓으로서의 다양한 작품을 확보하기와 같은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작품을 선정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점들을 동시에 고려한 작품선정은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결과들을 발생시켰다. 관객과의 공감이가 어렵거나, 화려하지만 작품성이 떨어지는 작품, 특정단체의 편중된 작품과 세계시장 진출에 성공할 수 있는 있는 기제가 있는 작품등이 공연되었다. 또 대구 혹은 한국의 지역적 특성의 소재와 글로벌한 소재와의 갈등, 대중적인 작품의 선정으로 인해 다양한 장르와 실험적 작품이 등한시 되는 결과를 낳았다.

덤프의 한정된 공간과 기획안에서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작품을 선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유명 공연축제들이 200여 곳이 넘는 장소에서 1000여개 이상의 작품들을 공연하는 것도 축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계층과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특성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축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덤프가 이제는 창작뮤지컬 축제로 한정하던지 아니면 아트마켓으로 방향전환을 하라는 의견

이 나오고 있는 것도 작품선정에서 보이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뮤지컬 산업의 발전, 아트마켓으로의 전환은 어쩌면 축제가 활성화되었을 때의 결과물일 수 있다. 많은 대중이 함께 즐기고 다양한 작품들을 보고 자극받기를 원하는 축제의 이상은 덤프의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한 목표와 조율 하지 못하고 있다. 덤프가 축제의 이름으로 지속되는 한 축제의 본질적 정의는 항상 문제의식으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 뮤지컬산업의 육성은 오히려 축제참여자의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고민함으로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대국국제뮤지컬축제 프로그램,” 1회-8회.

### \* 인터넷신문

『뉴데일리』, 『뉴시스』, 『데일리안』, 『매일경제』, 『매일신문』, 『서울경제』, 『세계일보』, 『한국일보』, 『헤럴드팝』.

### \* 인터넷자료

“2015년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DIMF Musical Seed(창작지원사업) 사업공고,” <http://www.dimf.or.kr/bbs/selectBoardDataDetail.do?mId=3100&boardName=notice&uid=397&page=1> (2014.09.15).

“대한민국 창작뮤지컬은 ‘DIMF’가 책임집니다,” <http://www.dimf.or.kr/bbs/selectBoardDataDetail.do?mId=3600&boardName=news&uid=304&eventUid=> (2014.09.10).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 [http://www.mcst.go.kr/web/s\\_culture/festival/festivalList.jsp](http://www.mcst.go.kr/web/s_culture/festival/festivalList.jsp).

“뮤지컬이 대구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1487&contents\\_id=14606](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1487&contents_id=14606) (2014.09.02).

### \* 인터뷰

2014년 11월 26일 박정숙 기획운영실장과 인터뷰, 장소 대구국제뮤지컬축제 사무실.

2014년 12월 18일 뮤지컬 작곡가 이응규와의 대화, 장소 공간 올림.

(부록 1) 공식초청작<sup>31)</sup>

	개최기간	작품명	공연단체	나라 및 도시
1	2007년 5월 20일 - 6월 24일	일파산조	중국 산서성 화진무용단	중국
2		캣츠	CJ 엔터테인먼트, 모티스, 리그(RUG)	호주
3		울고 넘는 박달재	극단가교	서울
4		컨츄리 보이 스캣	CJ엔터테인먼트, 쇼테크라인	서울
5		심청	국립창극단, 영남관소리연구회	서울, 대구
6		오즈의 마법사	(주)비행선코리아	서울
7	2008년 6월 17일 - 7월 6일	유로비트	글린니콜라스 그룹	호주
8		버터플라이	송레이 뮤지컬 프로덕션	중국
9		만화방 미숙이	극단뉴컴퍼니	대구
10		소리도둑	(주)쇼틱커뮤니케이션즈	서울
11		오디션	오픈런컴퍼니	서울
12		강아지 똥	극단 모시는 사람들	경기도(서울)
13	2009년 6월 14일 - 7월 5일	메트로 스트리트	아츠 아시아 퍼시픽	호주
14		미스타 조	드림키 21	서울
15		그랜드 체이스	극단 한울림	대구
16		비내리는 고모령(부제: 어머니의 손을 놓고)	극단 가교	서울
17		싱싱싱	서울뮤지컬컴퍼니	서울
18		라디오 스타	(주)쇼플레이	서울

31) “대구국제뮤지컬축제 프로그램 1회-8회,” 참조.

	개최기간	작품명	공연단체	나라 및 도시
19		가련한 리자	우 니키트스키트호 극장	러시아
20		소울 메이트	씨어터컴퍼니 CT	서울, 대구
21	2010년 6월 13일 - 7월 3일	양주	토마스 제퍼슨 뮤지컬 씨어터	멕시코
22		스페셜 레터	악어컴퍼니	한국
23		이순신	연희단체거리	한국
24		올 댓 재즈	박스컬처	한국
25		사파이어	컴퍼니 비 벨브와, 블랙스완 스테이트 씨어터 컴퍼니	호주
26		바버슈페라2	시브라이트 프로덕션	영국
27		아카데미	마츠 쥬퍼니 씨어터	미국
28		반디의 노래	한국환경노래보급협회	한국
29		브레멘 음악대	유미디어	한국
30		2011년 6월 19일 - 7월 9일	투란도트	(사)대구뮤지컬페스티벌, 대구광역시
31	옛 흙		아크로노트 컴퍼니	프랑스
32	로미오와 줄리엣		대구시립극단	한국
33	사랑해 테레사		송레이 뮤지컬 프로덕션	중국
34	아이 갓 파이어드		엔와이엠에프 글로벌 프로덕션	미국
35	헨젤과 그레텔		(주)스컹크웍스, (주)골드 클로버	한국
36	1224		초이스씨어터	한국, 대구

	개최기간	작품명	공연단체	나라 및 도시
37	2012년 6월 16일 - 7월 7일	아리랑 판타지	섬뮤지컬컴퍼니	한국
38		종글-징글-장글	아크로노트 컴퍼니	프랑스
39		비방문 탈취작전	맥씨어터	한국, 대구
40		셜록홈즈: 앤더슨가의 비밀	HJ Culture, 레히	한국
41		투란도트	대구광역시, (사)대구뮤지컬페스티벌	한국, 대구
42		식구를 찾아서	충무아트홀, 극단오징어, MJ플래닛	한국
43		단교	항주단교문화예술발전유한 공사	중국
44		홀스토메르	러시아 국립 우니키트스키호 보로트 극장	러시아
45	센트럴 에비뉴 브레이크다운	엔와이엠에프 글로벌 프로덕션	미국	

	개최기간	작품명	공연단체	나라 및 도시
46	2013년 6월 17일 - 7월 7일	썬피쉬	쓰리 헌드레드 백스 오브 라이스	미국과 딤프가 합작
47		뮤직 박스	(주)심포니나인, (주)제이콘 컴퍼니	일본과 딤프가 합작
48		카사노바	즈데넥 빼깰	체코
49		인당수 사랑가	CneS	한국
50		아리랑-경성26년	(사)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한국, 딤프
51		해를 품은 달	(주)쇼플레이, (주)이다엔터테인먼트	한국
52		오! 미스리	극단초이시어터	한국, 대구
53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대백전속극단 레오	한국, 대구
54		샘	연희단체거리	한국
55		삼총사	씨 브라이트 프로덕션	영국
56	2014년 6월 28일 - 7월 13일	마마 러브미 원스 어겐	리둔 프로듀서 (송레이 그룹)	중국
57		메이파밍짜	한국 극단뉴컴퍼니, 중국 강소성 연극단 공동제작	한국 중국 공동제작
58		마타하리	디발도 노바 웨나	슬로바키아
59		룩 앳 미	포키스 엔터테인먼트	한국
60		로스트 가든	(주)카프리즘	한국
61		몬테크리스토	오르로브 뮤지컬	러시아
62		까당스	아크로노트 컴퍼니	프랑스
63	특별공연	사랑꽃	극단 MAC 시어터	한국, 대구

(부록 2) 창작지원작

	공연 연도	작품명	공연단체	나라 및 도시	연출	극본	음악
1	2007	미라클	pama프로덕션	서울	김태린	김태린	
2	2007	마살아트 퍼포먼스, 달(Dal)	에스앤코	서울	정태영		
3	2007	우리 사랑해도 될까요	디엠씨 커뮤니케이션즈	서울	원광연	원광연	김두선
4	2007	마술사 죠니	뉴컴퍼니	대구	이응창	이성자	윤정인
5	2007	한네의 승천	경기도 문화의 전당국악당, AM엔터테인먼트	경기도	박성찬		김영동
6	2008	시간에	극단 뮤지컬스토리	서울	김병화	김병화	이윤지
7	2008	포에버	드림씨어터 컴퍼니	서울	정형석	원안: 정형석, 극본: 안현정	박정아
8	2008	마이 스케어리 걸	(주)뮤지컬해븐, (주)MBC프로덕션, (주)인터파크ENT	서울	변정주	강경애, 이재준	윌 애런슨
9	2009	스페셜 레터	(주)악어컴퍼니	서울	박인선	박인선	마창욱
10	2009	신문고	뮤지컬스토리	서울	김병화	김병화	서주은 신은경
11	2009	문리버	아하뮤지컬	서울	백훈기	골든 리어리	김현림
12	2009	탱고	뉴컴퍼니	대구	이상원	안희철 극, 작사	윤정인
13	2009	사랑을 훔치세요	예술기획 온	대구	김재만	이국희	윤정인
14	2010	헨젤과 그레텔	스킹크웍스	서울	최창열	최창열	유종수

	공연 연도	작품명	공연단체	나라 및 도시	연출	극본	음악
15	2010	표절의 왕	육십부리지마 컴퍼니	서울	최은이	최은이	황미래
16	2010	풀 하우스	(주)심포니나인	서울	성재준	원작: 원수연, 대본: 성재준	하광석
17	2010	번지점프를 하다	(주)뮤지컬 해븐	서울	에이드 리언 오스먼 드, 이재준	이문원	윌 애런슨
18	2010	사이드 미러	열혈예술청년단	서울	윤서비	김정용 극작, 가사	신경미
19	2010	마돈나 나의 침실로(부제: 로맨스1924)	극단 한올림	대구	정철원	신철욱 원작	
20	2011	식구를 찾아서	극단 오징어, 충무아트홀, 연천수레울아트홀	서울, 연천	오미영	오미영	조선희
21	2011	모비딕	모비딕 프로덕션, 두산아트센터	서울	조용신	조용신	정예경
22	2011	키네마 보이즈	극단 ct	대구	김미정	최창열	유종수
23	2012	날아라 박씨!	무엇이든지 창작단, (주)동이주락	서울	권호성	정준	조한나
24	2012	데자뷰	초이스 씨어터	대구	최주환	안희철	여승용
25	2012	주그리? 우스리?	(주)두왓 엔터테인먼트	서울	이대현	이수진	최도원, 한유진
26	2012	샘	연희단체거리	부산	이채경	이채경	폴 캐슬즈
27	2012	내 인생의 특종	힘컨텐츠(주)	서울	성종완	김경호	손윤아
28	2012	발레소녀 안나	스튜디오 반	서울	이강선	이강선	황미래, 강새롬

	공연 연도	작품명	공연단체	나라 및 도시	연출	극본	음악
29	2013	사랑꽃	맥 씨어터	대구	정철원	윤정인, 지안	윤정인, 구지영
30	2013	소프 오페라	(주)스펠엔터테인먼트	서울	임영조	곽영임	장소영, 황규동
31	2013	유 앤 미	동명2in	서울	김사명	엄경석	이아람
32	2013	룩 앤 미	(주)로렌조 컴퍼니	서울	이수진	함유진	김현아
33	2013	왕을 바라다	극단 더늬	서울	차지성	차지성	이보람
34	2014	상하이의 불꽃	예술기획 팀플레이	서울	추정화	이다윗	
35	2014	드 가장	(주)HJ컬처	서울	신유정	이동규	김용순
36	2014	쌍쌍옥조와 코끼리 페르디난도	(주)세가지소원, (주)위즈프로덕션	서울	허승민	강양희 대본, 작사	오승현
37	2014	꽃신	뮤지컬 꽃신	서울	김근한	육경선	조선희

**Abstract****Critical Review on Daegu International Musical Festival: Focusing on Selecting the Program**

Jee-Soo Han

While taking a look on the official invitational & DIMF Musical See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learn how the Dague International Musical Festival(DIMF) should help the musical industry development & appropriateness as being the local fair, and how DIMF's objective causes friction. In the case of selecting the foreign official invited work, the low quality of the work, the sympathy problem, and the burden of the work scale has caused making the concert hall expand excessively. In the case of the domestic official invited work has a goal in reflecting the identity of the local area(Dague), while consisting various works for the world market. DIMF works accounted over 38% in covering Dague areas' production, also to export musicals it had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projects, moreover, once source multi use, story-telling subjects for international use, and the Korean wave works had been selected. However, these kind of limits had limited people from various back grounds to see other various works, in which had led to limit its selection of work, also not being able to select high class works. The selection of work of the domestic official work tended to weigh its value more on the popularity rather than the experimental nature. Modified romantic comedy was used for the story-telling subjects, and by selecting existing showcases or other content works, it had showed more interest in having a box office profit rather than developing a new work. Eventually, DIMF was not able to media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terest of the economic added value

& ‘the popularity’ in which a lot of people could enjoy various works, hence, it could be explained that DIMF was not able to overcome of being more than just a Festival.

Keywords: Daegu International Musical Festival, musical industry, regionality, world market, official invitational, DIMF Musical Seed

투고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
2014년 10월 25일	2014년 11월 4일~23일	2014년 12월 1일